



〈본회 전자산업연구소〉

본회 전자산업연구소에서는 국내 전자산업 제조업체의 경기전망을 조사/분석하여 기업의 경영계획 수립 및 정부의 정책수립 마련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5월 20일부터 6월 20일까지 1개월간에 걸쳐 본회 회원사 및 생산, 수출 비중이 높은 전자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우편, 이메일에 의한 자계기입방식과 미회수 업체에 대한 전화인터뷰 조사를 병행하여 2002년도 하반기 전자산업 수급전망, 경기전망과 투자계획을 조사하여 내용을 정리하였다.(편집자)

## I. 2002년 상반기 전자산업 현황

### 1. 총괄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8.2% 증가한 288억불이다. 상반기 수출은 1/4분기까지 감소폭이 크게 축소되면서 4월 이후 증가세로 전환하였고, 미국경기의 회복이 당초 기대를 하회하는 수준에서 완만히 진행됨으로써 수출 또한 소폭 증가에 그쳤다.

4월 이후 급속한 원화절상으로 수출 채산성이

악화되었다.

내수는 전년동기대비 9.1% 증가한 33조 7천 억원이다.

월드컵 특수 등으로 디지털TV를 비롯한 디지털제품에 대한 국내수요가 증가하고, 소비시장은 본격적인 회복 국면으로 전환하는 모습을 보인다.

생산은 내수확대 및 수출증가에 힘입어 생산도 크게 증가하여 전년동기대비 15.9% 증가한 48조 5천억원이다.

수입은 전년동기대비 25% 감소한 172억불이다. 국제유가 하락과 원화가치 상승으로 인해 점차 증가하고 있지만 전년동기대비로는 감소하였다.

해 수출 부진하여 전년동기대비 9.2% 감소한 77억 7천만불이다.

〈2002년도 상반기 수급 현황〉

(단위: %)

구 분	2001년 상반기	2002년 상반기	증감율
수출 (백만불)	26,634	28,816	8.2
내수 (십억원)	30,970	33,787	9.1
생산 (십억원)	41,933	48,591	15.9
수입 (백만불)	17,694	17,250	△2.5

※ 자료 : KOTIS(수출, 수입), EIAK(생산, 내수)  
 ※ 생산, 내수는 잠정치

〈상반기 전자산업 수출 동향〉

(단위: 백만불, %)

구 분	2001년 상반기	2002년 상반기	증감율
전자산업	26,634	28,816	8.2
가 정 용	5,034	5,445	8.2
CTV	744	892	19.9
VCR	428	497	16.1
냉장고	417	438	5.0
산 업 용	10,568	12,923	22.3
휴대폰	2,876	4,098	42.5
PC	1,092	803	△26.5
프린터	202	233	15.3
모니터	1,588	2,353	48.1
위성방송수신기	210	282	34.3
일만부품	2,471	2,675	8.3
CRT	920	1,021	11.0
축전기	254	235	△7.5
PCB	310	331	6.8
LCD	92	105	4.0
반 도 체	8,561	7,771	△9.2

※ 자료 : KOTIS  
 ※ 합계차는 반올림에 의한 것임

2. 수출 동향

가. 부문별 동향

가정용은 CTV(19.9%) 등 디지털 제품의 경쟁력 제고로 수출 증가하여 전년동기대비 8.2% 증가한 54억 4천만불이다.

산업용은 컴퓨터(26.5%) 시장의 회복이 다소 늦어지고 있으나, 휴대폰(42.5%), 위성방송수신기(34.3%), 모니터(48.1%) 등의 약진으로 수출이 증가하여 전년동기대비 22.3% 증가한 129억 2천만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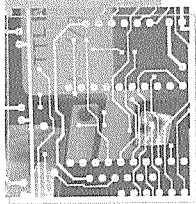
부품은 수출주력 품목인 CRT(11.0%), LCD(4.0%) 등의 선전으로 수출이 증가하여 전년동기대비 8.3% 증가한 26억 7천만불이다.

반도체는 가격 불안정과 계절적 비수기로 인

나. 지역별

미국(△9.8)과 일본(△19.1) 수출은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울들어 지속적으로 감소폭이 둔화하였다.

중국(76.5)은 휴대폰 등의 수출이 대폭 늘고 있으며 가전제품 및 통신기기를 중심으로 아프리카(42.9)를 비롯한 기타지역(22.6%)으로의 수출도 크게 증가하였다.



### <지역별 수출 동향>

(단위: 백만불, %)

구 분	2001년 상반기	2002년 상반기	증감율
미 국	6,914	6,627	△9.8
일 본	3,042	2,458	△19.1
중 국	1,652	2,916	76.5
아세안	3,473	3,827	10.2
E U	4,346	4,509	3.8
중남미	1,368	1,304	△4.7
아프리카	84	120	42.9
기 타	5,755	7,055	22.6
소 계	26,634	28,816	8.2

※자료 : KOTIS

### <2002년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

(단위 : %)

구 분	세계	선진국	미국	일본	EURO	신흥 시장국
WEFA( '02.2)	2.0	0.8	2.5	△1.0	1.4	3.6
IMF( '02.4)	2.8	1.7	2.3	△1.0	1.4	4.3
OECD( '02.4)	-	1.8	2.5	△0.7	1.3	-
Merril Lynch(6.21)	-	-	3.1	△0.3	1.5	-
J.P. Morgan(6.28)	-	-	2.8	△0.1	1.1	-
Deutsche Bank(6.28)	-	-	3.0	△0.2	1.3	-
Morgan Stanley(6.28)	-	-	2.8	△0.1	1.3	-
Salomon S. Bamey(6.19)	-	-	2.7	△0.8	1.0	-

※ 자료 : IMF, World Economic Outlook, April 2002

WEFA, World Economic Outlook, First Quarter 2002

OECD, OECD Economic Outlook, April 2002

## II. 2002년도 하반기 전자산업 경기전망

### 1. 국내외 경제여건

#### 가. 세계경제 전망

세계경제는 미국경제를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지속하여 지난해보다는 성장률이 높아질 것으로 보이며, 내년에 가서야 활기를 되찾을 것으로 전망한다.

달리는 올해 말부터 다시 강제로 돌아설 것으로 보이며 미국 경제가 회복되면 유럽이나 일본 경제에도 보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한다.

아시아의 경우, 중국과 인도는 기존의 고성장 기조를 계속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다른 아시아 국가들의 경우 당분간은 외환위기 이전 수준의 성장률을 되찾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한다.

#### 나. 국내경제 전망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국내 경기는 견실한 내수와 지속적인 수출확대로 전반적인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하는 반면, 미국의 경기 회복 불확실성과 환율하락으로 인한 대외여의 변화가 수출위주의 국내 경제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한다.

한편, 국내수요를 바탕으로 한 한국경제의 펀더멘털이 상당히 좋은 편이고, 월드컵 4강을 계기로 한국의 인지도 상승과 이로 인한 수출기업들의 경쟁력 제고로 국산제품의 수출도 증가될 전망이다.

#### <주요 경제지표 전망>

(전년동기대비, %)

구 분	2001	2001		
		상반기	하반기	연간
GDP 성장률	3.0	6.1	6.8	6.5
민간소비	4.2	7.8	6.0	6.9
설비투자	-9.8	5.2	12.7	8.8
소비자물가 상승률	4.1	2.6	3.3	3.0
경상수지(억불)	86.2	35	15	50

※ 자료 : 한국은행

〈기회요인/위협요인〉

기회요인	위협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의 강력한 거시정책</li> <li>- 지속적인 저금리 정책</li> <li>- 이로 인한 내수확대 기대</li> <li>- 구조조정의 강력한 의지</li> <li>- 경기 불확실성 제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월드컵의 성공적인 개최로 인한 국내 기업들의 브랜드 가치 상승</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업들의 현장체감경기를 수치화한 기업경기실사지수 (BSI지수)의 지속적인 상승</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 경기회복 불확실 및 금융시장의 불안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화가치의 상승으로 인한 환차손 및 가격경쟁력 하락</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 유가의 불안정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의 상승</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계부채 증가로 인한 국내 수요 위축 우려</li> </ul>

〈최근 제조업 BSI 추이〉

(단위 : BSI, 전분기 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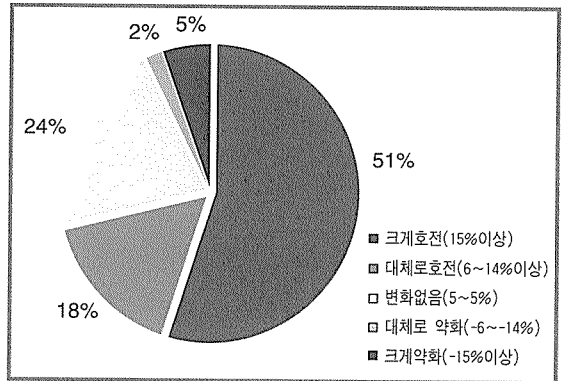
구 분	2000				2001				2002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전망치	125	138	116	109	63	100	99	86	80	133	125
실적치	103	108	96	65	58	82	70	66	95	120	-

※ 자료 : 대한상공회의소

타난다.

그러나 원자재 가격상승에 따른 생산원가 부담과 환율의 불안정으로 인한 환차손에 대한 우려도 있었다.

〈설문답변 현황-생산전망(하반기)〉



2. 설문조사 결과

가. 생산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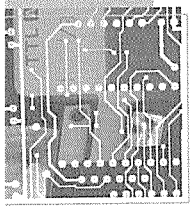
2002년 전자산업 생산은 대부분의 업체(69%)에서 상반기의 회세를 이어 하반기에도 계속 증가할 전망이다.

증가요인으로서는 경기회복에 따른 내수증가(33%), 수출증가(32%), 신제품 및 신기술 개발로 인한 국제경쟁력 강화(19%) 등의 순으로 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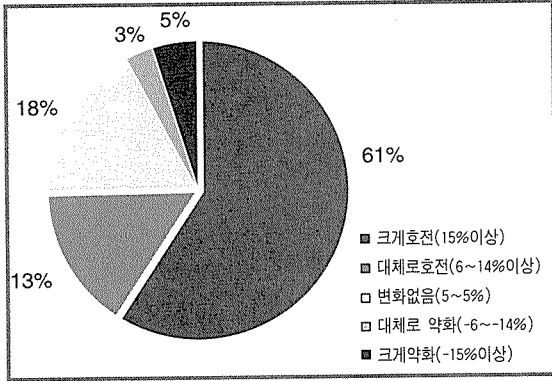
나. 수출 전망

국내 제품들의 가격 및 품질에 대한 경쟁력 제고(29%), 수출 시장의 다변화(28%), 세계경기의 회복(24%) 등에 힘입어 대다수 업체(74%)에서 전년 보다 호전될 전망이다.

세계경기회복의 불확실성과 환율의 불안정은 여전히 업계의 수출 전망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인 것으로 나타난다.



〈 설문답변 현황-수출전망(하반기)〉



### 3. 2002년 하반기 전자산업 경기전망

#### 가. 하반기 세계 전자산업 전망

세계 전자산업은 미국의 경기회복 속도가 큰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 미국의 전자산업은 전반적인 회복세를 이어가면서 하반기에는 완만한 성장을 보일 전망이다.

또한, 기존 과잉설비 해소와 IT경기가 되살아나는 내년 초부터 본격적인 경기 회복이 기대된다. 따라서, 올해 미국의 전자산업 시장규모는 작년 대비 1.6% 성장한 3천 8백억불로 전망한다.

일본의 전자산업 시장규모는 작년의 IT 침체가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았지만 다소 회복기미를 보이면서 전년 대비 1.0% 성장한 1천 9백억불로 전망한다.

중국을 가격경쟁력에서 앞선 저가의 전자제품

다량 출시와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거대 소비시장으로 인해 전년 대비 11.2% 성장한 7백7십억불로 전망한다.

유럽시장은 정보통신 및 가전제품 시장이 이미 포화상태에 접어든 것으로 추정되며 이로 인해 전년과 비슷한 수준에서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한다.

〈세계 전자산업 시장전망〉

(단위: 백만불)

국 가	2000년	2001년	2002년		
			성장률	성장률	
한 국	41,228	38,335	△7.0	39,713	3.6
미 국	472,257	374,020	△20.8	380,004	1.6
일 본	208,989	192,102	△8.1	194,005	1.0
중 국	61,799	69,720	12.8	77,508	11.2
독 일	63,327	59,138	△6.6	59,649	0.9
영 국	62,198	58,432	△6.1	59,547	1.9
프랑스	40,497	38,774	△4.3	38,605	△0.4

※ 자료: Yearbook of World Electronics Data 2002 Volume 1,2  
단, 중국은 Yearbook of World Electronics Data 2001 Volume 4

#### 나. 2002년 하반기 국내 전자산업 수급전망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39.9% 증가한 351억불로 전망된다. 하반기 신학기 시작 및 연말특수 등 계절적 수요에 대한 기대로 수출이 확대 될 전망이다.

이동 통신단말기, TFT LCD, 전자부품 등의 IT 품목과 가전제품 등의 지속적인 호조로 본격적인 상승세에 진입 할 전망이다.

지난해 하반기 큰 폭의 감소(△28.9%)에 따른 기술적 반등효과가 겹쳐 상대적으로 수출 증가율이 클 전망이다.

내수는 전년동기대비 22.6% 증가한 39조 5천억 원로 전망된다. 가전제품 및 IT제품을 중심으로 신제품, 고부가가치 제품에 대한 교체수요가 꾸준히 이루어지면서 상반기의 상승세를 계속 이어갈 전망이다.

생산은 전년동기대비 32.2% 증가한 56조원으로 전망된다. 계절적 요인에 의한 수요증가와 신기술 제품들에 대한 국제경쟁력 강화로 수출 증가가 기대되며 이로 인해 생산 역시 꾸준히 증가할 전망이다.

수입은 전년동기대비 28.6% 증가한 217억불으로 전망된다. 소비심리가 되살아나면서 수입확대를 이끌고 있으며 특히 소비재인 가전제품

(20.1%)을 중심으로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다.

세트제품과 완제품의 내수확대와 수출증가에 힘입어 산업용(0.4%), 반도체(24.8%) 등도 상반기와는 달리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02년 하반기 전자산업 수급전망〉

(단위: %)

구 분	하반기			연 간		
	2001년	2002년	증감율	2001년	2002년	증감율
수출 (백만불)	5,104	35,112	39.9	51,738	63,955	23.6
내수 (십억원)	32,263	39,563	22.6	62,707	73,321	16.9
생산 (십억원)	42,851	56,632	32.2	84,784	105,223	24.1
수입 (백만불)	16,930	21,777	28.6	34,624	39,032	12.7

※ 자료 : KOTIS(2001년 수출, 수입)